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활성과 간의 관계
-미혼모자시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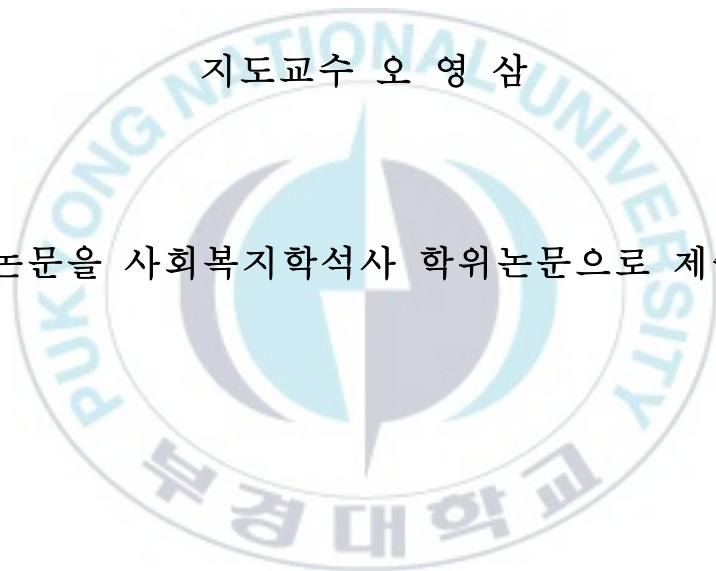
행정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오 세 현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활성과 간의 관계
-미혼모자시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오 영 삼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오 세 현



목차

Astract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6
1. 미혼모의 이해	6
가. 미혼모의 개념	6
나. 미혼모의 현황	7
2. 미혼모 정책	10
가. 미혼모 정책 및 지원서비스	10
나. 시설 미혼모의 생활실태	14
3.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17
가. 자아존중감	17
나. 자기효능감	19
4. 미혼모자시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25
5. 미혼모의 자활성과	31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36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36
2. 연구대상 및 절차	37
3. 측정도구	38
가. 인구사회 특성과 시설이용 경험	38
나. 자아존중감	38
다. 자기효능감	38
라. 미혼모자시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39
마. 자활성과	39
4. 자료분석방법	40
IV. 분석결과	42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42
가. 대상의 인구사회 특성 및 시설경험 기술	42
나. 정규분포성	43
다. 상관분석	44
2. 측정도구의 신뢰도	48
가. 신뢰도 검증	48

3. 구조모형분석과 가설 검증	48
가. 확인적요인분석	48
나. 구조모형분석	50
다. 가설 모형의 적합도	51
라. 연구모형의 인과분석	53
마. 인지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모형분석	55
V. 결론	58
1. 요약 및 논의	58
2. 한계점 및 제언	64
<참고문헌>	65
<부록: 설문지양식>	79



표 목차

<표 1>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8
<표 2> 자활성과 영향요인 정리	34
<표 3> 설문지 구성	40
<표 4> 연구대상의 특성	42
<표 5> 주요변인 간의 정규분포성	43
<표 6>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활성과의 차이검증	45
<표 7> 변수 간의 상관관계	46
<표 8>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48
<표 9>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추정결과	49
<표 10>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52
<표 11> 연구모형의 각 요인들 간의 인과분석결과	53
<표 13>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57

그림 목차

<그림 1> 연도별 모자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15
<그림 2> 연구모형	36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51
<그림 4> 매개모형	55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elf-sufficiency
Outcomes of Unmarried Mother Discharged from the Welfare Facilitie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from Welfare Facilities

Sea Hyun Oh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s personal and internal psychosocial factors on the outcome of self-sufficiency in single mothers who had left facilities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areas, such as single mother family welfare facilities and mother-headed family welfare facilities.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the perception of self-sufficiency support services as an external secondary social support system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uch self-sufficiency support services were examin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samples of adult single mothers aged 20 or over with children who had left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facilities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areas, such as single mother family welfare facilities and mother-headed family welfare facilitie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using the criteria structured by preceding studies, and ultimately used 211 sets of data for the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as used for the basic analysis required for the study, as well a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path analysis, and effect decompositio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modelling and hypothesis verifi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f single mothers who had left the facilitie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support for support services and the outcome of self-sufficiency, and the support for support services was also analyzed to exert a positive effect on the outcome of

self-sufficiency. In addition, the social support for self-sufficiency support services at facilities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s perceived by single mothers who had left the facilities was found to show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elf-sufficiency.

Ultimately,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served as psychosocial protection factors to enhance the outcome of self-sufficiency as primary personal and internal aspects of single mothers who had left the facilities. Furthermore, the secondary self-sufficiency support services at facilities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served to reinforce their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hich this study analyzed as the effects of factors encouraging single mothers to possess the will for independence and a positive outlook for the future. This process showed a partial mediation effect of the support for support services. Even though the social support for self-sufficiency support services at facilities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does not necessarily explain self-sufficiency for single mothers, this study found that supporting and cooperating with such support services played a partially contributive or mediatory role in further enhancing the outcome of self-sufficiency due to the resulting will for independence and a positive outlook for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s on the outcome of self-sufficiency by psychosocial factors as primary personal and internal resources that influence the self-sufficiency of single mothers after leaving the facilities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s well as the social support for the self-sufficiency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facilities for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as external secondary support system, thereby having a significance of gaining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structural relationship as a comprehensive and unified model.

I. 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풍요를 누리게 된 반면, 그에 따른 역기능적 현상도 겪게 되었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하나는 미혼모의 증가이다. ‘미혼모’¹⁾라는 용어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생모(生母)’를 의미하는 것이고, ‘혼외자(婚外子)의 모(母)’로서 표현되기도 한다. 미혼모란 사전적 의미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모든 여성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도 포함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10).

미혼모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통계청(2016) 자료에서 2000년 혼외자녀 출생수가 5,540명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8,152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2017)의 모자보호시설 입·퇴소자 현황에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사유를 제외한 순수 미혼모 입소자의 수가 2000년 16명에서 2016년 55명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미혼모의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집계되지 않은 미혼모의 수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한다.

미혼모가 갖는 문제는 기존의 사회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계층으로서의 취약성에 있다. 이들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임신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사회적 상황, 사회의 냉대와 거부로 인해 죄의식, 수치감, 소외감과 출생하게 될 아이로부터 주어지는 부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포기하는 등 기존의 생활기반을 잃게 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임신과 출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끊임없

1)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모(unmarried mother, unwed mother)’라는 말이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일고 있으며, 이밖에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독신모(single mother), 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이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여 안정된 생활을 어렵게 한다(김지혜, 조성희, 2016). 다시 말해, 미혼모가 가진 다양한 한계와 문제로 인하여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복지대상자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혜영 외, 2010; 김지혜, 2013).

한편,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적절한 산전관리와 불균형한 영양상태 등으로 미숙아, 조산아, 선천적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이숙희, 2006), 출산 후에도 아버지가 없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혼모들은 스스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감정적, 교육적,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변호순, 최정균, 2016) 자녀들이 정상적이고 안정된 양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미혼모가 가진 다양한 문제는 본인을 넘어 자녀에게 학교와 사회 부적응의 2차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미혼모가 겪는 다양한 문제를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는 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공공부조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즉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미혼모에 대한 명칭이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미혼모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혼모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혼모가 일정기간 거주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모자가족복지시설은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지원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미혼모 출산 후 의료혜택과 직업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7). 모자가족복지시설은 미혼모가족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나 혹은 정원초과로 인하여 미혼모자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미혼모자가족의 경우에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7). 미혼모 대상의 시설 복지는 미혼모자의 안정과 보호, 그리고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를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입소기간이 긴만큼 미혼모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시간, 미혼모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불식, 그리고 양육 미혼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지연 등의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육 미혼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곽미정 외, 2017; 전재희, 2017).

미혼모자시설의 입소 미혼모들 중에서는 성공적인 자활을 이뤄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여전히 신체적·정서적으로 불안하여 자립을 하지 못하거나 시설퇴소 이후에도 성공적인 자활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적 자활을 이루지 못하는 미혼모들의 심리사회적 환경을 보면, 미혼모의 대부분이 자신과 사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감보다 부정감이 크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이 낮으며, 스스로에 대한 지지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다수의 미혼모가 목적과 과업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취동기를 가진다(김혜숙, 김동연, 2005).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치될 경우 사회적응기술의 미발달과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며, 종래에는 자신과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형성한다(참고문헌 필요). 결국 미혼모의 상황을 ‘적응(adaptation)’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들의 부적응은 사회구조 내의 다양한 자원의 결핍과 스트레스, 지지의 부족으로 부터 기인한다(박윤아, 이영호, 2017).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²⁾으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가정환경,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보고되었다(Bradley & Corwyn, 2002;

2) 보호요인은 심리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 요인을 의미한다.

김정희, 2008; 이영주, 2007; 최혜란, 박숙희, 2009; 김광혁, 2006).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 가운데 미혼모가 가지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과업의 달성, 성취동기, 자활의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 김지혜, 2004; 2006; 남미애, 2013; 김선영, 2014).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다. Coopersmith(1967)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스스로를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성공적이라고 믿는 정도에 대한 평가이다. 자아존중감은 인격적 용인 가능성과 사랑받을 가치에 대한 포괄적 평가 또는 판단으로 구성되며, 거기에는 유쾌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수반된다.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타인들에 의해 지각된 본인에 대한 시각과 관계가 있다(McGrath & McGrath, 2003).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에 얼마나 스스로 대처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일컫는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내적 동기 유발, 인지적 평가 및 자각과 상관이 높다는 점에서 인간 행동 반응 중 하나인 '적응'과 연결되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이윤조, 2002). 특히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적응과 성취, 성공, 성과를 예측하는 대표적 심리변인으로 알려져 왔다(박현미, 2013). 따라서 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이들의 성공적 자활을 예측하는 주요 심리사회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혼모들이 적절한 자활지원서비스로부터 자원과 관심을 제공받을 경우, 목표한 자활성과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김혜순, 이명희, 2012; 김은자, 2014). 결혼제도 밖에서 임신, 출산, 양육을 하면서 아직도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일탈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는 미혼모들에게 있어서 미혼모자시설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는 이들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된다. 그러나 지지체계의 이용과 지지체계와 자활성과와의 관계에서 미혼모간의 차이가 크다. 왜냐하면 미혼모가 처한 개인특성과 배경이 다르며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지지체계와 결과에 상이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참고문헌 필

요). 즉, 미혼모들이 동일한 지원서비스를 받더라도 미혼모가 가지고 있는 보호요인(예: 자기효능감)이 지원서비스와 자활성과와의 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김지혜, 조성희, 2016). 미혼모 문제가 보다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관에서 미혼모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의 품질과 양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심리상태와 자활에 대한 성취동기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자에게 좀 더 개별화된 돌봄(personalized care)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모두 포괄하여 자활성취와의 관계를 살펴본 기존연구는 드물며, 이 관계에서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자활성과에 기관 서비스의 질과 양뿐만 아니라 성취와 관련한 개인의 심리상태도 중요한 역할(참고 문헌)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자활성공을 적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미혼모의 성공적 적응이 그들의 성공적 자활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성공적 자활의 주요인으로써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이 보호요인은 미혼모가 경험하는 지원서비스로부터의 지지와 영향관계를 가질 것으로 고려하였다. 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활성과와의 관계에서 미혼모자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미혼모의 이해

가.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unmarried mother, unwed mother)에 관한 정의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도미향, 채경선(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하며, 혼외의 경우는 미혼모라 하지 않고 단지 혼전임신에 한해 미혼모로 통용되고 있다. 한인영(2000)은 미혼모가족을 미혼의 여성이 임신을 하여 자녀를 출생시킴으로써 가족을 구성한 경우라고 하였다.

NASW(1965)의 정의에 따르면 “미혼모란 그 개념상 미혼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이혼, 사별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만여부에 관계없이 혼전임신 중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가진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 둘째,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 셋째, 혼외의 경우인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국내의 정의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법적 혼인절차 없이 의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을 ‘자발적 미혼모’라 칭하고 있다. 자발적 미혼모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최근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며, 반대로 비자발적 미혼모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경우로서 도덕적 측면에서 일탈로 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임신에 한해서 미혼모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의 개념은 혼외 또는 미혼의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회 문제화 되는 규범 내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고, 미망인과 같이 성차별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에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공모한 미혼모의 새로운 이름으로 ‘두리모’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는데, 이는 미혼모의 새 이름으로 ‘둥글다’, ‘둘레’, ‘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두리’에 한자 어머니 ‘모(母)’자를 결합한 신조어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하고 둥근 마음을 갖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 현재 미혼모의 용어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리모’라는 용어가 아직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한부모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미혼모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한부모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미혼모란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을 의미하며, 이중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는 미혼의 여성으로서 미혼모자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하다 퇴소한 양육미혼모를 시설퇴소 미혼모로 규정하고자 한다.

나. 미혼모의 현황

보건복지부(2014)에 의하면 1990년 미혼모 아동이 2,369명, 2000년 4,190명, 2005년 2,638명, 2010년 2,804명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2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출산 시 아동을 모의 호적에 입적을 하여야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이후부터 2012년 1,989명, 2013년 1,534명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는 요보호 아동의 감소와 함께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증가함을 보여준다. 미혼모 발생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매년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 중 미혼모 아동수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미혼한부모가구를 합산하여 미혼모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2014)에

의하면 매년 발생하는 요보호 아동 중 미혼모 아동 수는 평균 2,700여명이다. 그리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표에 의한 양육 미혼한부모 연 증가인원은 약 3,800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둘을 합하면 미혼모의 연간 총 발생 추정인원은 6,500여 가구이다.

미혼모는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통계청(2016) 자료에서는 2000년 혼외자녀 출생수가 5,540명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8,152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2016년 자료에서는(통계청, 2017) 약 7천 8백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단위: 천 명, %, %p)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감
출 생 아 수	계*	445.5	491.0	463.8	443.1	468.2	470.2	483.5	435.8	434.8	438.1	406.0	-32.1
	혼인 중의 자	438.7	483.3	455.4	434.4	458.5	460.2	473.3	426.4	426.3	430.0	398.2	-31.8
	혼인 외의 자	6.8	7.8	8.4	8.7	9.6	10.0	10.1	9.3	8.5	8.2	7.8	-0.4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혼인 중의 자	98.5	98.4	98.2	98.0	97.9	97.9	97.9	97.9	98.1	98.1	98.1	0.0
	혼인 외의 자	1.5	1.6	1.8	2.0	2.1	2.1	2.1	2.1	2.0	1.9	1.9	0.0

주) 법적 혼인상태 미상 제외

여성가족부(2014)에 의하면 17개 거점기관을 이용한 미혼모부가정은 996가정으로 나타났으며, 1개 거점기관 당 평균 59가정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17개소에 등록되어 있는 양육미혼모의 누적 인원수는 3,000여명이 넘고 있으며 이것은 어디까지

나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았던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의 숫자이다. 지원제외 대상인 원가족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함께 양육하는 미혼모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미혼모, 아이의 월령이 센터 내 규정에 초과하는 미혼모는 거의 제외된 숫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정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미혼모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여성가족부(2010)에 의하면 미혼모 시설에서 퇴소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입양아동수가 감소하고 양육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도 미혼모가 있어 왔지만 상당수가 자녀를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였으나 최근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양육미혼모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변화에 따라 양육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일환으로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양육미혼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차원에서도 양육미혼모를 지원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신분을 드러내면서 양육미혼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가족 관련법과 제도의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는 다소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출산만큼은 법적인 혼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법률혼주의가 지배적이고,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 간 이성교제 자체가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 학칙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2010)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학업중단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결혼 지위가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교 교육비, 기초수급자이면서 자립 활동에 참여하

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과 함께 주거지원등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로 통계청(2010)의 장래 가구추계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 가구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1만 6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의식의 변화가 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생활 및 의식변화 추이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작성한 청소년 통계(통계청, 2013)에 따르면 2012년도에 13세~24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고(58.4%)」,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가 25.9%에 달하였다. 2010년도에 각각 53.3%, 24.2%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청소년의 의식변화가 미혼모의 증가와 무관하다고만 할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금숙(2012)에 의하면 여성단체, 학자/연구자, 공무원집단, 유관기관의 조사응답자들은 90.6%가 향후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미혼모 증가 현상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4%는 ‘사회변화의 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17%만이 ‘사회부적응의 현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미혼모 정책

가. 미혼모 정책 및 지원서비스

2009년 국가는 입양아동들을 부모가 양육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서비스 제공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미혼모가족지원센터에서 재가양육미혼모 지원 시범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미혼모부자지원사업은 아동을 입양하지 않고 양육하기를 원하는 출산 전 미혼모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정서적·정보적 지원으로 ‘위기지원’인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들의 근본적인 어려움 즉, 아동양육의 어려움, 주거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대상 양육미혼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은 2015년 현재까지도 2009년 예산과 동일하다. 증가하는 미혼모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분산되어 나누어 지원될 수밖에 없어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5개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 센터 당 10가구를 지원하는 정도이지만 양육미혼모에게 직접서비스의 일환으로 주거지원을 하게 된 것은 미혼모지원에 있어 발전적인 현행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은 임신한 미혼여성 등이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상담 및 양육교육, 미혼모 시설 입소, 정부지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종합적인 상담 및 경제적 지원 연계를 하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근거법령 및 추진체계

근거법령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와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근거이다. 사업대상은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가구이다. 추진체계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전국 17개 사업수행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2) 지원내용

첫째,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해소,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감 해소, 사회 편견으로 위축된 자존감 향상, 자립심 강화 등을 위한 상담과 주거·양육 등에 대한 생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출산 및 양육(위기)지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미혼모·부로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 지원이 긴박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출산비 및 아이의 병원비지원 등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친자검사비 지원, 넷째,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자조모임 운영지원으로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유관기관 연계 지원으로 '희망복지 129센터'와 공조,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하며,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수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기타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정보사항 등을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3) 미혼모 지원사업의 문제점

지역사회 미혼모부자를 위한 거점기관이 전국 16개 시도 17개소(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가족지원센터 등)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대상은 양육을 하는 미혼모·부자 가정이며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비수급자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혼모·부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 접근성의 문제

전국적으로 17개소에 불과하여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도별로 한 곳만 있어 미혼모들의 접근성에서 불리하며, 담당자는 1명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여 미혼모들과의 대면상담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자조모임 역시 거리상의 문제로 근거리 대상자인 미혼모들이 참여하고 있고 원거리의 미혼모들은 참여가 어려운 상황으로 대상자들의 전체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5)의 대상자는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모든 양육미혼모이다. 아동의 월령 36개월 이하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2013년도에 77명, 2014년에 70명,³⁾ 2015년 10월 현재 9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위기지원을 의뢰한 미혼모의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광범위한 권역 내에서 담당자 1인은 미혼모들의 자조모임과 위기지원, 상담 등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나) 서비스의 질적·양적 문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위기지원은 연간 70만원 이내에서 출산 시 출산비 지원과 육아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을 한다. 광범위한 지역적인 문제로 자조모임의 참여가 어려워 미혼모들의 정보교류의 문제점과 적은 예산에 모든 양육미혼모가 아닌 아동의 월령이 36개월 이하인 양육미혼모 가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각각의 도 거점기관에 담당자 1인이 대상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광역단위라는 점이 재가미혼모지원사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0)에 의하면 미혼모의 정책 욕구조사 결과,

3) 2014년 감소이유는 안산 세월호 위기가족지원으로 서비스가 지연됨.

취업교육이 현실성이 없고 청소년미혼모 거의 대부분이 학교를 중퇴하고 있으며, 심리적 불안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양육미혼모의 나이가 고령화되어 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양육의 욕구가 있으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하였다. 주거에 대한 욕구가 크나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순위에 서 밀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의 비용부담이 크고, 미혼모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욕구로 분만지원과 더불어 ‘미혼모지원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015년부터 시작한 미혼한부모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미혼모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미혼모를 포함하여 현재 재가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해 주어도 월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혼자서 양육하면서 자립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주거지원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에 공적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접근성 문제해결을 위해 거점기관으로 전국에 17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지원으로 생필품 지원을 아동 양육 시 일정기간 충분히 제공해 주어 양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양육과 자립을 동시에 원하는 정부 지원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주거지원의 무상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곧 자립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정부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시설 미혼모의 생활실태

여성가족부(2017)의 모자보호시설 입·퇴소자 현황에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사유를 제외한 순수 미혼모 입소자의 수가 2000년 16명에서 2016년 55명으로 나타났다. 모자보호시설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보호기간 3년, 2년 연장가능) 보호하여 생계를 지

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자보호시설 수 및 생활현황 자료는 한정된 시설에서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지표이나, 전체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모자보호시설 입퇴소 현황



2016년 말 기준, 전국 42개 모자보호시설에 1,803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수는 2007년 41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한 42개소로 최근 10년간(2007~2016년) 큰 변동은 없다. 2016년도 모자보호시설 입소의 주된 사유는 이혼(66.7%), 미혼모(24.8%)이며, 주된 퇴소 사유는 입소기간 경과(45.2%), 자진 퇴소(36.8), 가족관계변동(8.4%)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계독립 수치의 경우 경기불황 등의 영향에 따라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에 의하면 미혼모들은 대부분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은 평균 3.29세로, 응답자의 82.8%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나이는 25세 이상과 30대 미혼모의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

동 및 수입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혼모는 양육을 결정하면서 사회적 관계인 가족과 친구, 아기아빠 등과의 단절을 경험하기에 강력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10)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고서에서는 미혼모의 연령이 20대에서 10대로 낮아지면서 연령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2005)의 조사 자료에서 미혼모연령이 15세에서 36세 이상까지 넓은 연령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연령이 낮아짐을 입증해 준다. 교육수준은 학생미혼모 중 50.0%, 청소년 양육미혼모 중에는 28.3%가 고등학교 중퇴, 미혼모 원가정의 약 30~60%가 일반가정이 아닌 한부모 및 재혼가정으로, 미혼모의 직업은 무직 상태가 가장 많았고 미혼모의 임신 경험 횟수는 재임신의 경우가 약 30%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2010)의 지역사회 거주 미혼모 조사에서 미혼모의 43.2%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미혼모는 21.8%로 조사되어 미혼모의 경제적인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2014)에 의하면,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이용자의 절반이 30대였으며 20대가 36%로 나타났다. 지역자원과의 연계지원서비스, 교육·문화프로그램, 상담서비스 이용인원이 각각 5,976명, 5,345명, 3,179명으로 나타났다.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4)에 의하면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원가족과 갈등관계에 처해지며, 낙태를 강요당하기도 한다. 자발적으로 출산을 결정하고 아동을 양육하면서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본인과 아이를 버리고 떠난 아이 아버지의 인격에 실망하거나 양육비로 인해 이후에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여 아이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과의 단절과 아이 아버지와 단절로 미혼모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해진(2014)은 양육미혼모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문제, 가부장적 법과 제도 등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에게 불리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법의 보완을 통해 직접 양육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문순영(2015)에 의하면 미혼모자가족 정책이 미혼모자가족의 자립이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립까지 강요하는 현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립, 주거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양육미혼모의 어려움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임신으로 인한 원가족과 아이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족과의 관계 단절, 출산으로 경제활동 감소와 수입의 감소로 인한 심리적·경제적인 어려움, 교육의 중도포기, 사회적 편견과 아동양육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가.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매우 광범위한 연구주제로 학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아개념, 자신감,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자가지각 등 여러 용어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자아존중감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나 자기의 가치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되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Maslow(1970)는 자아존중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가치 있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으며,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으로 느끼며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면 열등하고, 나약하고, 무력하게 느낀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

을 정의할 때 평가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Gilmore(1974)는 ‘타인과의 비교 또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 수용, 승인하는 정도’라고 보았다. Rosenberg(1965)는 ‘내적기준이나 기대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적 태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성격, 능력, 자신의 가치, 자신에 대한 인지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보통 자기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스트레스 사건에 처하거나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그 원인을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여 스트레스 사건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이 달라진다.

결국,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은 인생의 역경에 대처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스스로를 인정·존중하는 태도와 행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격 및 행동을 이해하는 심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우울증, 부정적 정서 상태, 과민성, 충동성, 소외감, 인정에 대한 욕구, 높은 기대 수준, 문제 회피, 비합리적인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Gecas, 1982)하였고, 미혼 모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충격과 부인, 사실을 직면하는 것, 의사결정에 이르는 심리적 단계를 겪으며, 자아존중감의 상실 등 심한 정서적인 문제를 안게 된다(Gloria & Mary, 1998). 한부모는 양부모에 비해 우울감이 높고(Rodger & Rose, 2002), 십대 어머니가 성인어머니보다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났으며(Wahn & Nissen, 2008),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으며(Bolland, 2003; Jackson & Scheines, 2005; Wahn & Nissen, 2008), 이러한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부모역할 수행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자녀의 발달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Avenevoli & Merikangas, 2006; Elgar et al., 2007).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 지속 여부와 사회적 지지, 자존감이 양육스트레스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지적된다(Budd et al., 2006; Umaña-Taylor et al., 2013).

배영미(2001)는 미혼모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볼 때,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이 미혼모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든지, 미혼모가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든지 간에 결국에는 미혼모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미혼모가 경험한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개인내적인 요인 중의 하나인 자아존중감이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미혼모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중재개입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위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잘 해낼 수 있는가 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다(Bandura, 1977). 이런 판단은 사람들의 행동 수행과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과제 수행여부, 노력의 정도, 지속성, 개인의 깨닫는 성취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인간 행동 변화가 행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한다.

효능기대는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다. 예컨대 무엇을 꼭 하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질 때 효능의 기대는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며, 결과기대란 일단 행동을 취할 때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예상이며, 자신의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개인적 기대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기대란 그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적 확신을 가리킨다.

Bandura는 효능기대란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이 자기효능감이 결과기대보다 동기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지 알아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결과기대는 행동 동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효능감이란 행동의 시작, 유지, 노력 정도, 장애 극복 정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노력을 많이, 오래 하지만 약할수록 노력을 적게 하게 될 것이다.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즉 구체적인 자신감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와 통제 소재의 지각 등에 의해서 자신이 취할 행동의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지각할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기 효능감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단일한 기대나 신념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 등은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로 각각 상이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6).

첫째,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Sherer et al., 1983).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로써의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라고 축소된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Bandura, 1986).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반응으로 표출된다.

둘째, 자기조절효능감이란 개인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 할 수 있다. 이

리한 자기조절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판단인 인지과정과 자기반응의 동기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목표인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을 판단하고, 긍정적이라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적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가적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셋째,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하며, 그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넷째, Silver et al.(1995)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귀인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귀인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어떤 결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귀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효능감의 증진이나 감소,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수행은 자기효능감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다. 하지만 수행은 개인이 어떤 귀인과정을 거치는가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더라도 외부요인에 귀인을 하면 수행은 자기효능감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즉 성공의 원인이 운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적절한 기술이나 노력이라 생각할 때, 자기효능감 증대에 도움이 된다. 수행에 있어서 실패를 능력 귀인하게 되면 자기효능감은 저하된다.

결과의 원인을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귀인과정이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은 노력으로 성공하면 자기효능감은 크게 증진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면 자기효능감은 크게 저하된다.

이와 함께,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은 성취완성,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흥분의 네 가지 주요한 원천을 갖는다고 하였다.

첫째, 성취완성(performance accomplishments)은 실제의 정복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보원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신뢰로운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공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강한 신념을 형성하며, 실패는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Bandura에 의하면 성공 경험은 단지 대리적인 경험이나 인지적 시뮬레이션, 또는 언어적 지시에만 의존하는 양식들보다 더욱 강하고 일반화된 효능감을 산출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사람들은 효능감에 따라 행동하고, 그들이 조절하여 성취할 수 있는 수행으로부터 자기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하며, 성공적 수행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나, 반복된 실패는 효능감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둘째,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은 자신과 유사한 타인의 성공적인 성취를 보거나 상상함으로써 자신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Kasdin, 1973). 이러한 대리경험은 일반적으로 성공경험보다 자기효능감에 적은 효과를 미치지만, 수행에 대한 노력을 통해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선례, 1995). 아울러 자신과 유사한 타인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노력도 적게 한다고 하였다(Brown & Inouye, 1978). 일반적으로 대리 경험은 성취 완성보다 적은 영향을 미친다.

셋째,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말하여 주는 것으로서, 언어적 설득은 적절한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언어적 설득은 확실한 경험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성취 완성보다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는데 있어 그 효과가 약하다. 그리고 언어적 설득에 의해 갖게 된 자기효능감은 불일치 경험에 의해 쉽게 소거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설득자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가질 수 있다(Bandura, 1977).

언어적 설득은 실제의 수행과 관련을 맺어 실시되며, 피설득자가 자신이

효과적으로 대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Chambliss & Murry, 1979). 비록 언어적 설득만으로는 자기효능감을 창조하고 지속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수행을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는 성취에 기여한다. 또한 언어적 설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피설득자의 특성 즉, 권위, 숙련성, 신뢰성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의존한다(Bandura, 1986).

넷째, 정서적 흥분(emotional arousal)은 억압적이고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정서적 흥분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보다도 안정되어 있을 때 성공을 기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생리적 흥분 상태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정서적 흥분은 자기 평가를 통하여 불안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불안을 일으키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생각은 실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안보다 더욱 강한 불안을 경험하게 한다. 정서적 흥분에 의해 전달된 정보는 판단과정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판단과정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Bandura, 1977).

(1) 흥분의 원인에 대한 귀인: 흥분의 원인을 자신의 무력감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원인을 환경적 요소로 인식하는 사람보다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 Sarason(1976)은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은 과제의 어려움보다는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 선입관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과거의 경험: 과거에 있어 정서적 흥분이 과제의 수행을 촉진시켰던 경험을 한 사람과 정서적 흥분이 과제의 수행을 방해하였던 사람이 정서적 흥분에서 느끼는 자기효능감은 다르다.

(3)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 어떤 정서적 흥분은 복합적인 환경적 요소 속에서 발생한다. 이 환경적 요소 중 어떤 요소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것

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의 정보원이 신뢰 있는 것일수록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크게 일어난다. 예를 들면, 참여모델 기법은 대리 경험보다 더 높고, 강하고, 일반화 정도가 큰 자기효능감을 발생시킨다(Bandura et al., 1977).

이상과 같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과제나 역할에 따른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과제를 성취하는 데에 낮은 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과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반면, 자신이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몰두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또한 노력의 투입과 그 지속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된다. 특히 어려움에 부딪칠 때,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과 실천을 하고 더 오래 인내할 것이다(Bandura, 1986).

그러나 미혼모들은 원가족과의 관계, 아이의 장래, 미혼부와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 자신의 미래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신체의 건강문제보다 심리사회적으로 겪는 압박과 고통이 크기 때문에 자신감에 대하여 복잡한 의문을 갖게 되고, 자기효능감을 잃고 자책감에 빠져 극도의 자아가 위축되는 현상을 보인다(김미희, 박성옥, 2013; 김선영, 2014).

우리사회의 미혼모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출산, 입양과 관련된 보호시설 확충 등 양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손지영, 2017), 미혼모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심리치료 및 부모상담, 미혼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및 상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경제적 자립을 통해 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의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특화된 자활서비스 운영, 취업알선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여성가족부, 2005)으로 보여 진다.

4. 미혼모자시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사회화되며 발달해 나간다.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소이다. 삶의 과정 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의 사랑, 도움, 우정 등의 지지는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스스로 인정받고 있음을 지각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이유선, 1999).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은 적응자원(Adjustive Resources), 사회적 조직망(Social Network), 사회심리적 자원(Psycho-social Resources), 혹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등 연구자의 접근개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화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대, 관계망의 구성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지의 주관적 지각이나 평가, 즉 지각된 사회적지지, 그리고 실행된 지지로서 지지행동 등 3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Cobb(1979)에 의해 개념 정의, 기능 및 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규명되었으며, 그는 사회적 지지를 생활주기의 관점에서 설명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주효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후자를 더욱 중요시하였다. 즉 그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으로 하여금 보살핌과 사랑, 관심을 받고 있다는 믿게 하는 정서적 지지, 자기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믿게 하는 자존심의 지지와 동시에 의사전달과 상호 의무의 망조직(사회적 조직망)에 속해 있음을 믿도록 하는 소속지지로 구분하였다.

이밖에 여러 학자들이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Weiss(1974)는 사회적 지지라는 용어를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정의하였으며, 애착, 사회적 통합, 양육의 기회, 가치인정, 신뢰할 수 있는 유대감, 물질적 도움의 여섯 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Kahn & Avtonucci(1980)는 사회적 지지를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한 대인간 교류라고 하였으며,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면서 유형별로 각기 정의하였다. 그리고 House(1981)는 정서적 관심, 도구적 도움, 정보, 칭찬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이 포함된 대인관계적 지지라고 정의하였다(김경희, 1998, 재인용).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단계를 통하여 한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

또 다른 측면은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이다. 이것은 개인이 맺고 있는 실제적인 대인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 지각하고 있는가를 측정해서 이것을 사회적 지수로 삼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몇 명이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의논할 동료자가 있는가를 물음으로써 그 관계의 질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지지는 지지적 행동에 의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이에 부분의 사회적 지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각기 그 구성 방법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Gottlieb(1978)는 사회적 지지에 정서유지, 문제해결, 개인적 영향력 그리고 환경개입의 4개 지지영역을 포함시켰다. Barrera et al.(1981)의 ISSB(사회적지지 행동 평가 도구: 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 척도⁴⁾는 정서적 난관을 극복하고, 과업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 기술을 가르치며, 물질적 보조를 제공하는 행동 등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체적 지지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척도는 지지영역간의 연계가 미흡하거나 지지영역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

4) Barrera et al.(1981)은 척도 개발의 지침으로, 첫째, 주관적 해석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동적 구체성을 강조하였고, 둘째, 특정인구집단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는 심리적 적응상태와의 개념적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를 함의하는 문구를 삭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이원숙, 1992).

최근 사회적 지지 척도는 어떠한 지지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Krause(1995)는 Barrera의 ISSB척도 중 12개 항목을 삭제하고, 사회통합에 관련된 13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된 척도는 정보적 지지, 도구적지지, 정서적지지 그리고 사회통합의 4가지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MOS(Medical Outcomes Study)의 연구팀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여러 측정도구로부터 기능적 특성에 관련된 항목을 수집하고, 5가지 지지기능을 사정하는 19개 항목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사회적 지지척도는 정서적 지지(긍정적 정서의 표현, 감정이입적 이해), 정보적 지지(조언, 정보, 지침 또는 환류의 제공), 구체적(도구적)지지(물질적 보조 혹은 행동적 보조제공),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이용가능성), 애정적 지지(사랑과 애정의 표현을 포함)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김경희, 1998, 재인용). 이 척도는 장점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유사개념들(소외감, 소속감, 정신건강 및 사회적 기능 등)간의 개념적 혼돈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으나, 크게 기본적 욕구충족, 지지적 행동 그리고 기능적 및 구조적 특성의 측면에서 개념 정의되고 있다. 기본적 욕구충족으로의 접근은 사회적 지지의 목적 또는 기능을 반영하고 있으나, 지지의 본질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 지지행동에 의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갖는다.

(1) 사회적 망이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유대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망 구성원들간의 지지적 행동이라는 개념적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2)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그리고 사회통합의 다차원적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는 개념임을 나타내주고 있다.(최은정, 1998)

이러한 논리에서 사회적 지지의 개념정의는 지지적 행동으로 접근되는 것

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사회적 지지이론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특성, 구조적·기능적 특성, 그리고 기능적 특성으로 접근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가 구조적 또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으로 접근되는 연구는 사회적 지지연구 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당시에는 사회적 지지가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의미하는 가에 관한 개념적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85년 전후,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특성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다수 연구는 기능적 특성 특히 다차원적 지지기능을 사정하는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차원적 지지기능을 사정하는 척도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 지지의 개념정의 중에서 지지적 행동에 의한 접근이 가장 타당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미혼모들에게 있어서 미혼모자시설에서 제공하는 자활지원서비스는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 사회적 조직망이 개인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경험과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자기 가치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일체감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막아주고 사회적자원에 대한 지각 정도를 높여줌으로써 스트레스 등의 부적응 적이고 병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중재해 주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는 연구처럼(지선근, 1999), 자활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는 미혼모의 유·무형적 자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모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사회적 지지체계인 자활지원서비스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서 일치되는 것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발달과 적응이 긍정적이고 문제심리나 행동의 감소를 보인다는 것이다(권재환, 2008; 김유심, 박지영, 2010).

특히 미혼모들이 몇 가지 지원제도만으로 자립·자활하기는 쉽지 않다. 미혼모를 둘러싼 심리적, 물질적,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자립의지가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혼모자시설을 통해 환경적 요인들을 제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미혼모의 자립의지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사회적 지지 효과가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활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영자(2010)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지지,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적 요인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나, 김세원(2005)은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만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며, 사회적 지지만이 없는 경우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자활대상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종희(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립의지의 하위변수인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허태현(200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 하위요인 중 자신감과 근로의욕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통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House(1981)가 기능적 측면으로 분류한 4가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자활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지지와 자활성과의 관계이다. 김미연(2009)이 연구한 그룹홈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요인으로 정서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물질적 지지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재은(2009)은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나 자립의지의 하위 요인인 근로의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화(2007)도 화상으로 인한 안면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 유형 중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가 자립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중 물질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이경희(2006)의 연구와 근육병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한수정(2004)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임현숙(2008)의 재가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서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정보적 지지와 자활성과의 관계이다. 재가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임현숙(2008)은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적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학력이 높은 재가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영주(2007)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정보적 지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고, 중요한 선택에 있어 충고와 조언을 해 주는 것은 물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정보적 지지를 통해 자립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경제적(물질적) 지지와 자활성과의 관계이다. 변규란(2007)은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가운데 공식 사회적 자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어 공식 사회적 자원이 많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몽순(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중 물질적 지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과 교육비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이 한국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적응문제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금전이나 물품 등 물질적 지원을 통해 사회의 관심, 신뢰, 애정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신감이나 근로 의욕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평가적 지지와 자활성과의 관계이다. 최연경(2005)과 배경진(2006)에 의하면 평가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강민정(2000) 역시 사회복지사, 또래 친구의 평가적 지지가 가출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재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연구한 임현숙(2008)은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평가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은 재가노인들이 그렇지 못한 재가노인들에 비해 칭찬이나 인정을 더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부강(2013)은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에 평가적 지지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저소득 여성의 자활의지에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와 자활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활지원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유형적 요소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정책적 지원이나 공식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 자원을 통해 간접적 지지체계를 인지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자립의지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 기능은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미혼모의 자활성과

미혼모의 자활성과는 단적으로 ‘미혼모자시설 퇴소’나 ‘사회경제적 자립’, 혹은 ‘지원 및 보호대상에서의 이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자활·자립의지의 함양이나 긍정적인 사회적응 태도 등 의식적 측면과 심리사

회적인 결과로 논의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미혼모 복지지원서비스의 만족도나 지원규모, 지원참여율 등 보다 실제적이고 정량적인 성과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활성과의 기준 차이는 자활복지실천에 있어서 ‘투입-과정-산출-결과’의 단계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나타나는데, 산출 및 결과에 치중하는 관점은 효율성에 의의를 두지만,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개인의 내적 변화를 통해 적응을 예측하고 거시적인 복지 구현을 기대한다(백학영 외,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과정적이고 질적인 관점에서 자활성과를 다루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논의된 자활성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자활성과란 자활사업이라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목적과 관련하여 행정환경에서 일어난 물리적, 또는 행태적 변화들 가운데 자활프로그램에 의하여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하는 변화, 결과물을 의미한다(정원오, 1997). 이러한 자활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은 자활지원서비스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자활의지나 경제적 자활효과를 입증하고자 하였다(김은영, 2008; 강명희, 2011).

강남식 외(2002)는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동기, 열망인 자활 의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활사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 및 가족 구조적 특성, 자활사업 특성, 정부 지원체계 특성(서유미, 2008)과 사업내적 요인, 사업외적 요인(김영미, 2002)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개인 및 가족 구조적 특성에서는 건강상태와 질병·장애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특성, 사업유형, 지원규모 및 기간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김수진(2007)의 연구에서는 성별, 나이, 학력, 건강상태, 장애유무, 직업경험, 부채여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자활사업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종희, 2010).

자활지원서비스 참여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자활사업 참

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창업 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김승의, 2006)에서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의 심리 사회적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신혜경(2002)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정서·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지지관계, 사회통합, 경제적 자활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그중 정서·심리적 측면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자아존중감(김광웅, 부정민, 2006; 이상미, 2016)과 자기효능감(엄주리, 하은혜, 2014; 이석범 외, 2002; 이재명, 2009)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자활지원서비스 참여자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임걸, 2004) 자활사업 참여이후 근로만족도의 변화에 있어서 가족, 친척, 이웃·친구·동료,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도움이 많을수록 근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자활 대상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최종희, 2010)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립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자활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 내적 측면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외부의 사회적 지지체계 및 지원서비스를 자활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연자(2014)는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미혼모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성과평가 연구에서,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받고 있는 미혼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만족도와 그 전달체계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혼모자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통합성, 적절성, 책임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문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거하였다. 하지만 접근성 요인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두려워하여 선부른 접근을 원치 않는 미혼모들의 특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미혼모자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서비스 이용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적절성 요인 하나뿐이었고, 전문성 요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나머지 접근성, 통합성, 책임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혼모들의 특성에 정확하게 맞추어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2> 자활성과 영향요인 정리

구분	효과차원	요인
개인내적요인	1차(내부)	성별, 나이, 학력, 가족구조, 질병, 건강상태, 장애유무, 직업경험, 부채여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여부,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심리적 측면
지지체계 및 사업정책요인	2차(외부)	사회적 지지, 가족, 친척, 이웃·친구·동료, 사회복지 전달공무원의 도움, 자활사업 특성, 정부 지원체계 특성(사업내적 요인, 사업외적 요인), 참여특성, 사업유형, 지원규모, 사회통합, 경제적 자활, 참여자의 태도, 서비스 전달 체계

행정·정책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해주는 수단이 된다. 사회복지조직은 그들의 복지서비스를 필

요로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므로 평가는 가치 지향적이며 근본적으로 서비스 전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다 하겠다.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 일이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모니터링 된 결과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의 전단계로 환류되며 이 정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거나 변경하게 하는 결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심영미,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미혼모 문제를 분석하고 유형에 따른 접근방법을 모색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개발과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혼모자시설의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간의 보호를 통해 자립·자활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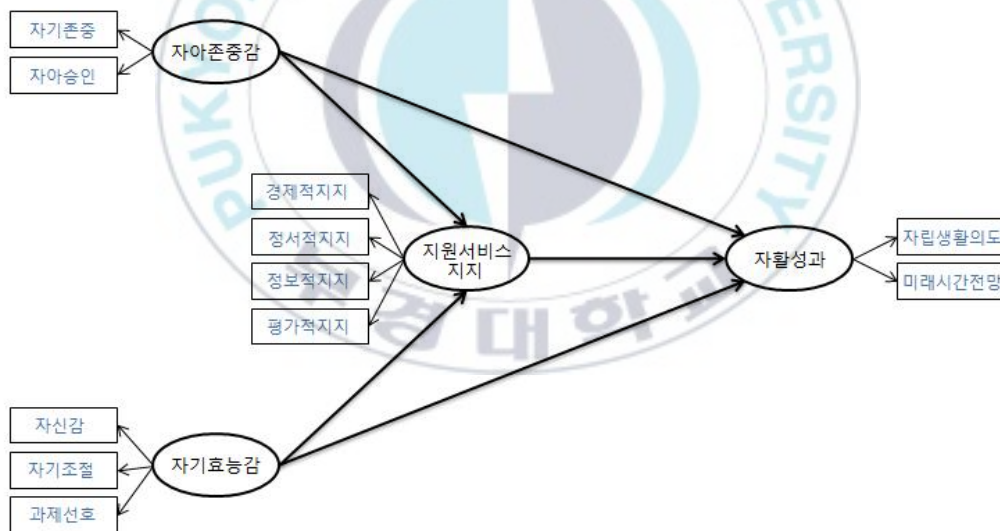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자는 미혼모 지원서비스가 준비되고 진행됨에 있어 원래 목표하는 바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가? 미혼모 지원서비스가 미혼모들의 내·외적 상황에 따라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짐과 동시에, 지금의 양적 지원만으로 미혼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정책의 투입-과정-산출-결과의 단계 중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미혼모가 사회와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적응(자활)상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자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활성과 자립생활의도와 미래시간전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및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미혼모들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자활성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외부자원인 시설로부터의 지원서비스(이하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가설 1. 시설퇴소 미혼모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것이다.

가설 2. 시설퇴소 미혼모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자활성과와 통계적 유

의성을 가질 것이다.

가설 3. 시설퇴소 미혼모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것이다.

가설 4. 시설퇴소 미혼모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높은 자활성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것이다.

가설 5.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높은 수준의 자활성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것이다.

가설 6.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활성과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매개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경남 지역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미혼모이다. 대상자들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써 시설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대상 미혼모자시설은 설문협조가 가능한 시설로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였다. 기관의 실무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구성은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지도교수와 사회복지사, 미혼모 복지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Rubin & Babbie, 2012)를 검증받았다. 다음으로 미혼모 1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실

시하였으며, 연구자와 보조자가 직접 대상자들과 대면을 하여 설문지 배포가 이루어졌다. 이에 총 249명의 표본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된 설문지 249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되었거나 항목이 누락된 것을 제외한 후, 유효한 설문자료 211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가. 인구사회 특성과 시설이용 경험

연구대상의 인구사회 특성을 파악하고자, 연령, 학력, 자녀연령을 질문하였으며, 시설퇴소 후 경과기간을 질문하였다. 본인연령, 자녀연령, 퇴소 후 경과기간은 단답형 실수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학력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SES])는 자기 존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Rosenberg(1979)가 개발하고 오승환(2001)이 번역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거친 것을 사용하였다. SES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자기존중에 관한 5개의 문항과 자아승인에 관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으며 부정문항의 경우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다. 자기효능감

미혼모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hen et al.(1988)이 개발하고, 이를 김찬호(201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신감 4문항, 자기조절 3문항, 과제선택 3문항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라. 미혼모자시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미혼모가 지각한 미혼모자시설로부터의 지원서비스 즉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와 황윤경(1995)이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경제적 지지 3문항, 정서적 지지 3문항, 정보적 지지 3문항, 평가적 지원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마. 자활성과

본 연구에서는 자활성과는 크게 자립생활의도와 미래시간전망으로 구성하였다. 자립생활의도는 이상록, 진재문(2003), 이정선(2004), 박일현(2010)의 연구에서 활용된 자립태도 척도를 사용(4문항)하였다. 미래시간전망은 Carstensen & Lang(1996)이 개발한 미래시간전망(Future Time Perspective: FTP) 설문지를 강태신, 임영식(2008)과 김민희(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사용(4문항)하였다. 각 척도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자활 성과를 의미한다.

<표 3> 설문지 구성

변인		문항수	척도
인구사회 특성과 시설이용 경험	연령	1	단답형(만 연령)
	학력	1	명목척도(고졸이하/대재이상)
	자녀연령	1	단답형(만 연령)
	퇴소후 경과기간	1	단답형(년/개월)
자아존중감	자기존중	5	1-5
	자아승인	5	1-5
	소계	10	
자기효능감	자신감	4	1-5
	자기조절	3	1-5
	과제선호	3	1-5
	소계	10	
사회적 지지	경제적지지	3	1-5
	정서적지지	3	1-5
	정보적지지	3	1-5
	평가적지지	3	1-5
	소계	12	
자활성과	자립생활의도	4	1-5
	미래시간전망	4	1-5
	소계	8	
계		44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변인과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요인, 시설이용경험 요인의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을 시행하기에 앞서 모형의 정규분포 가정을 검증하였는데,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인은 정상분포(왜도: ± 2 , 첨도: ± 7)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정규 P-P도표에서 회귀표준화 잔차들은 직선에 가깝게 산재되었고, 산점도에서는 잔차의 이분산성이 보이지 않아 정규분포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활성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변량분석(t-test,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검증하기 위해서 chi-square, goodness-of-fit index (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 (AGFI),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normed fit index(NFI),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사용하였다(Kline, 2011). 구조방정식에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각각의 지표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통계량으로 모형을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Kline, 2011). 적합도 지수의 수용기준(cutoff value)은 $RMSEA \leq .08$, $SRMR \leq .08$, $GFI \geq .90$, $AGFI \geq .90$, $NFI \geq .90$ 이다(Kline, 2011).

둘째, 구조모형분석은 Anderson & Gerbing(1988)가 제시한 2단계 모형을 이용하였다. 1단계에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2단계에서는 구조(경로)모형분석(structural mod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CFA모형을 이용하여 최종 경로(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경로의 유의성과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우도추정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 대상의 인구사회 특성 및 시설경험 기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경남 지역 미혼모자시설, 즉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및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미혼모들로서 최종 211부를 실제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퇴소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의 특성

(N=211)

	구분	N	%
연령	20대이하	149	70.6
	30대이상	42	29.4
학력	고졸이하	122	57.8
	대재이상(중퇴/휴학포함)	89	42.2
자녀연령	만2세이하(영아)	47	22.3
	만5세이하(유아)	134	63.5
	만6세이상(학령기)	30	14.2
퇴소후 경과기간	2년미만	37	17.5
	4년미만	79	37.4
	4년이상	95	45.1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 이하가 149명(70.6%)으로 30대 이상 42명(29.4%)보다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122명(57.8%), 대재 이상 89명(42.2%)로 고졸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자녀 연령대는 만3세~5세 사이의 유아가 134명(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만2세 이하 영아가 47명(22.3%), 만6세 이상 학령기 자녀가 30명(14.2%)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가 미혼 모자시설 퇴소 후 경과된 기간에서는 4년 이상(95명, 45.1%), 2년~4년 미만(79명, 37.4%), 2년 미만(37명, 17.5%) 순으로 파악되었다.

나. 정규분포성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정규성을 보여주는 왜도와 첨도를 제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변인 간의 정규분포성

변인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자아존중감	1.00	4.30	2.9457	.6188	-.426	.597
자기존중	1.00	5.00	3.0031	.7288	-.205	-.106
자아승인	1.00	5.00	2.8883	.7396	-.028	-.249
자기효능감	1.00	5.00	3.0251	1.0549	-.299	-.872
자신감	1.00	5.00	3.0381	1.0693	-.240	-.779
자기조절	1.00	5.00	3.1738	1.1730	-.281	-.860
과제선택	1.00	5.00	2.8633	1.1648	-.143	-.993
사회적 지지 전체	1.00	4.62	3.0763	.9457	-.487	-.792
경제적 지지	1.00	5.00	3.1029	.9680	-.377	-.902
정서적 지지	1.00	4.50	2.9141	.9673	-.304	-.839
정보적 지지	1.00	5.00	3.1901	.9912	-.373	-.756
평가적 지지	1.00	5.00	3.1523	1.1715	-.334	-.945
자활성과	1.00	4.58	3.5846	.8084	.705	-.136

자립생활의도	1.00	4.20	3.5406	.7443	.144	-.781
미래시간전망	1.00	5.00	3.6134	.9623	1.135	.713

<표 5>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왜도와 첨도의 모든 값이 절대값 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정규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변수의 평균값을 중앙값(M=3.0)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난 변수들은 자기존중, 자기효능감 전체, 자신감, 자기조절, 사회적 지지 전체, 경제적 지지, 정보적 지원, 평가적 지지, 자활성과 전체, 자립생활의도, 미래시간전망이 중앙값 3점 이상의 변수로 나타나 다소 긍정적인 면이 강한 변수로 조사되었다.

다. 상관분석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표 7>에서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또 다른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r=.649$, $p<.001$)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r=.677$, $p<.001$)와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종속변수인 자활성과($r=.680$, $p<.001$)와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수인 자활성과($r=.780$, $p<.001$)와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와 사회적 지지 간에는 정(+)의 관계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도 정(+)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수 간에도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활성과가 커지고, 이 과정에서 시설에서 제공받은 인지된 지원서비스 즉 사회적 지지 제공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으면 자활성과가 커짐을 의미하고 있어, 이론적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측정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에서 하위변수인 자기존중과 자아승인 간에는 $r=.533$ 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자기효능감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으로는 자신감과 자기조절 간에 상관계수가 $r=.748$ 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에서는 경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가 상관계수 $r=.773$ 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한 종속변수인 자립생활의도와 미래시간전망 간에 상관계수는 $r=.734$ 로 나타나 전체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의 의심이 되는 상관계수가 .80 이상의 관계를 보인 측정변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결국 본 연구의 측정변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변수 간의 상관관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1														
b	.67***	1													
c	.68***	.53***	1												
d	.64***	.44***	.68***	1											
e	.59***	.41***	.62***	.62***	1										
f	.60***	.42***	.63***	.63***	.74***	1									
g	.61***	.41***	.65***	.63***	.74***	.72***	1								
h	.67***	.49***	.68***	.61***	.72***	.78***	.75***	1							
i	.63***	.44***	.66***	.77***	.70***	.72***	.72***	.65***	1						
j	.62***	.48***	.60***	.74***	.66***	.72***	.68***	.61***	.76***	1					
k	.60***	.46***	.59***	.72***	.65***	.72***	.65***	.61***	.77***	.68***	1				
l	.63***	.44***	.66***	.76***	.66***	.73***	.72***	.62***	.75***	.71***	.70***	1			
m	.68***	.54***	.64***	.76***	.69***	.75***	.69***	.78***	.72***	.71***	.71***	.73***	1		
n	.67***	.53***	.64***	.74***	.69***	.70***	.68***	.75***	.71***	.68***	.67***	.71***	.63***	1	
o	.62***	.49***	.59***	.71***	.63***	.72***	.64***	.73***	.67***	.68***	.68***	.68***	.66***	.73***	1

***p<.001

(a: 자아존중감 전체, b: 자기존중, c: 자아승인, d: 자기효능감 전체, e: 자신감, f: 자기조절, g: 과제선회, h: 사회적 지지 전체, i: 경제적 지지, j: 정서적 지지, k: 정보적 지지, l: 평가적 지지, m: 자활성과 전체, n: 자립생활의도, o: 미래시간전망)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가. 신뢰도 검증

측정도구의 신뢰도란 측정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측정변수의 진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이며, 측정오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Tabachnick & Fidell, 2007). 즉 신뢰성이란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측정값의 분산을 의미한다. 신뢰도간에는 측정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다 문항 측정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항이 의도한 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분석하게 된다. 통계적으로 신뢰성은 측정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측정 도구의 신뢰성은 주로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알파 값이 0.7 이상이면 문항 간의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도의 측정결과는 다음 <표 8>와 같다. 종속변수인 자활성과의 Cronbach's Alpha 값은 자립생활의도가 0.845이고, 미래시간전망은 0.871이며, 전체는 0.892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자기존중 요인은 0.921, 자아승인 요인은 0.780, 전체는 0.874로 나타났다. 또한, 또 다른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요인은 0.902, 자기조절 요인은 0.920, 과제선호 요인은 0.896, 전체는 0.945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서는 경제적 지지 0.818, 정서적 지지 0.784, 정보적 지지 0.914, 평가적 지지 0.835, 전체 0.886의 내적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		문항수	Cronbach's Alpha 값
자활성과	자립생활의도	4	0.845
	미래시간전망	4	0.871
	자활성과 전체	8	0.892
자아존중감	자기존중	5	0.921
	자아승인	5	0.780
	자아존중감 전체	10	0.874
자기효능감	자신감	4	0.902
	자기조절	3	0.920
	과제선택	3	0.896
	자기효능감 전체	10	0.945
사회적 지지	경제적 지지	3	0.818
	정서적 지지	3	0.784
	정보적 지지	3	0.914
	평가적 지지	3	0.835
	사회적 지지 전체	12	0.886

4. 구조모형분석과 가설 검증

가.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본 연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연구 모형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

는 개념을 말한다. 즉,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Kline, 2011). 각 변수별로 문항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위요인의 위계적 2차 요인모형(hierarchical factor model)으로 측정된 결과는 <표 9>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변수의 하위요인별로 높은 적재치를 보여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의 변수간 관계에 관한 모형 적합도는 $\chi^2 = 222.629 (p < .001)$, $\chi^2/df = 3.227$, GFI=0.917, AGFI=0.879, NFI=0.901, CFI=0.913, RMSEA=0.074, RMSR=0.053으로 권고기준치에 전반적으로 부합하여 각 요인에 대한 측정항목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각 설문문항들이 4개 잠재변수 11개의 하위 측정변인에 의하여 잘 설명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측정변인들은 채택된 잠재변수의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추정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자아 존중감	→	자기존중	1	.983		
		자아승인	1.568	.820***	.357	4.388
자기 효능감	→	자신감	1	.878		
		자기조절	.978	.916***	.088	11.163
		과제선호	1.256	.944***	.084	15.045
사회적 지지	→	경제적 지지	1	.997		
		정서적 지지	.874	.985***	.050	17.657
		정보적 지지	.962	.943***	.052	18.500
		평가적 지지	.890	.953***	.056	15.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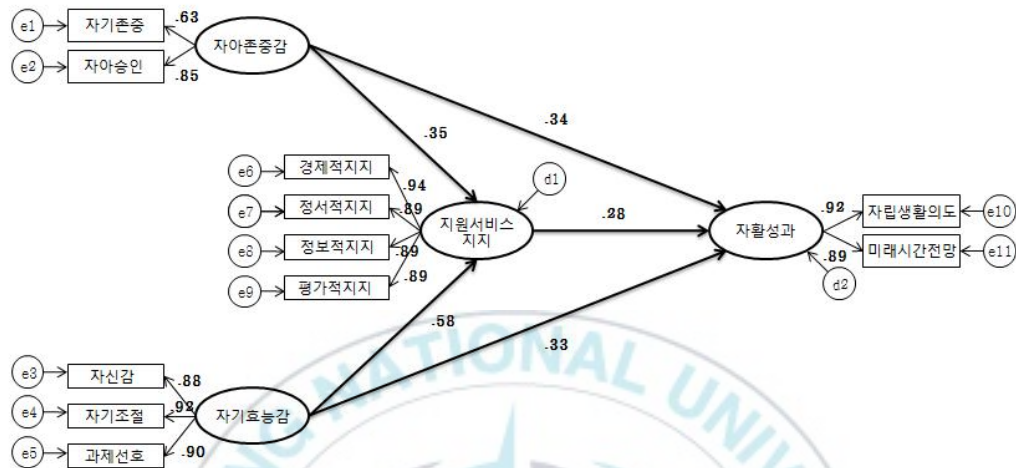
자활성과	→	자립생활의도	1	.995		
		미래시간전망	1.061	.818***	.047	22.383

*** p<.001

나.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우선 모형이 검증될 수 있는 모형인가를 파악하는 모형에 대한 인정성이 중요하다. 경로분석의 모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의 수가 미지의 수보다 더 많아야 하는 필요조건이 있어야 한다(Kline, 2011). 여기서 정보의 수는 측정변수들의 분산 및 공분산 값들의 공분산행렬로 관계방정식의 수를 뜻하며, 미지의 수는 추정할 모수의 수를 의미한다. 정보의 수가 미지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충분 모형 또는 간명모형’의 가능성을 보인다. 주어진 정보의 수는 측정변수의 수를 p 로 나타낼 때 $p(p+1)/2$ 이다. 오차에서 잠재변인으로 가는 경로는 1로 고정시켰으며 오차는 자유 추정되었으며 측정변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요인계수를 1로 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총 11개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므로 66개의 정보의 수가 존재하고, 추정 모수의 수는 회귀경로(5), 공분산(4), 요인부하량(7), 오차분산(11개), 잔차(2)로 총 29개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 정보의 수가 미지의 수보다 많으므로 모형인정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므로 모형이 과대식별 되어 구조모형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델과 잠재변수와 이를 측정한 지표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측정모델로 구성된다. 입력 자료는 상관행렬을 사용하였고 모수의 추정에는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의 경로 및 표준화 계수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chi-square=85.636(df=38, p=.000), GFI=.944, AGFI=.903, RMSR=.020, NFI=.969, RMSEA=.070

다. 가설 모형의 적합도

충분 인정모형으로 인정된 이론적 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에 앞서, 추정 공분산행렬이 입력 공분산행렬과 유사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적합도를 평가에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에는 이들을 연구모형이 입력 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 가를 나타내는 절대적합도지수, 연구모형이 null 모형에 비해 얼마나 적합도가 높은 가를 평가하는 증분적합도 지수 및 경쟁모형 간에 적합도와 간결성을 고려하는 더 나은 모형을 결정하는 간결적합도지수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χ^2/df	GFI	AGFI	RMSEA	NFI	CFI
85.636	38	.000	2.254	.944	.903	.070	.969	.983

먼저 연구모형이 입력 자료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 가를 나타내는 절대적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인 절대 적합도지수인 모형의 완전성, 즉 모형이 모집단 자료에 완전하게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인 χ^2 통계량은 85.636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χ^2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크고 측정 변수들의 수가 많을수록 입력 공분산행렬과 추정 공분산 행렬 간의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여 공분산행렬 값들 간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Kline, 2011).

GFI는 입력공분산행렬내의 분산/공분산이 추정공분산행렬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90보다 크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본 연구모형에서는 .944로 나타나 최적모형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GFI는 모형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GFI를 자유도에 의해 조정한 지수이며, GFI보다 값이 낮고 일반적 기준치는 역시 .90보다 크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간명도를 평가하는 적합도지수로 본 연구모형에서는 .903로 최적모형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간명도를 보였다.

RMSEA은 χ^2 통계량의 한계점은 표본의 크기가 크거나 측정 변수들의 수가 많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쉽게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χ^2 값을 자유도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한 값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0.1 이상이면 모형의 채택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대체로 .08보다 낮으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으로는 .05 이하이면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하는 적합도로 본 연구모형에서는 .070로 대체로 수용 가능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증분 적합도 지수의 하나의 하나인 NFI값은 연구모형의 χ^2 값과 null 모형의 χ^2 값 간의 차이를 null 모형의 χ^2 값으로 나눈 비율로 값이 클수록 적합도가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90 이상이면 적합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모형에서는 .969로 최적의 모형으로 수용이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NFI를 발전시킨 CFI는 .983으로 매우 높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 최적모형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연구모형의 인과분석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의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이론모형의 경로를 <표 11>에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개의 경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모형의 각 요인들 간의 인과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C.R(t)
자아존중감	→	사회적 지지	.714	.215	.348**	3.313
		자활성파	.516	.188	.335**	2.742
자기효능감	→	사회적 지지	.557	.094	.579***	2.891
		자활성파	.239	.077	.332**	3.117
사회적 지지	→	자활성파	.208	.079	.277**	2.632
측정 모형	자아 존중감 →	자기존중	1.000		.627	
		자아승인	1.404	.142	.850***	9.855
	자기 효능감 →	자신감	1.000		.876	

			자기조절	1.129	.053	.916***	21.395
			과제선호	1.098	.053	.898***	20.557
	사회적 지지	→	경제적 지지	1.000		.944	
			정서적 지지	.942	.038	.890***	24.737
			정보적 지지	.966	.040	.886***	24.339
			평가적 지지	1.145	.046	.890***	24.698
	자활성 과	→	자립생활의도	1.000		.920	
			미래시간전망	1.242	.060	.885***	20.530

p<.01; *p<.001

첫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및 종속변수인 자활성과 관련된 2개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에서 사회적 지지 경로와 자아존중감에서 자활성과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및 종속변수인 자활성과 관련된 2개의 경로에서, 자기효능감→사회적 지지 경로와 자기효능감→자활성과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자활성과 간의 경로에서, 사회적 지지→자활성과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하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자아존중감에서는 자아승인이 자기존중에 비해 큰 영향력을 보였고,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과제선호, 자신감 순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에서는 경제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성과에서는 자립생활의도가 미래시간전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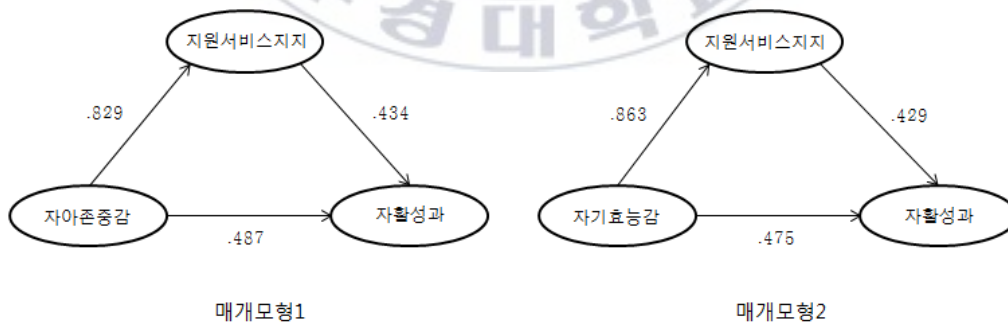
결국 각 변수들의 경로에서 시설퇴소 미혼모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고, 이 과정에서 시설로부터의 지원서비스 즉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제공될 때, 높은 자활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모형분석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본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경로계수(효과)에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으며, 하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가는 경로인 직접효과와 다른 하나는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로 가는 간접효과(매개)이다.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의 곱으로 나타내며, 총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최종 모형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효과분해를 통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알아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그림 4> 매개모형



먼저, 전체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서비스지지는 직접효과만 자활성가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활성가는 향상되며, 이 과정에서 미혼모자시설에서 제공받은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자립생활의도나 미래시간전망에 대한 자활성가는 더욱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지원서비스 지지는 자아존중감으로부터 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기효능감에서도 강한 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개모형1에서 자아존중감만을 투입한 경로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지원서비스 지지가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은 자활성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원서비스 지지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를 부분매개로 하여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모형2에서 자기효능감만을 투입한 경로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지원서비스 지지가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자기효능감은 자활성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원서비스 지지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은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를 부분매개로 하여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은 시설퇴소 미혼모의 1차적인 개인내적 변인으로서 그 크기에 따라 자활성과를 향상시키는 심리사회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2차적인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보완하는 효과를 보여 미혼모들의 자활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갖도록 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전체 모형	자아존중감	자활성과	.516 (.335)*	.148 (.096)*	.664 (.432)**
	자기효능감		.239 (.332)**	.116 (.160)*	.355 (.492)**
	지원서비스 지지		.208 (.227)**	-	.208 (.277)**
	자아존중감	지원서비스 지지	.714 (.348)***	-	.714 (.348)***
	자기효능감		.557 (.579)***	-	.557 (.579)***
매개 모형 1	자아존중감	자활성과	.733 (.487)***	.542 (.360)*	1.275 (.847)***
	지원서비스 지지		1.667 (.829)***	-	1.667 (.829)***
	자아존중감	지원서비스 지지	.325 (.434)***	-	.325 (.434)***
매개 모형 2	자기효능감	자활성과	.301 (.475)***	.235 (.370)*	.536 (.846)***
	지원서비스 지지		.320 (.429)***	-	.320 (.429)***
	자기효능감	지원서비스 지지	.733 (.863)***	-	.733 (.863)***

추정치: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p<.05, **p<.01, ***p<.001

V. 결 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미혼모자시설, 즉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및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미혼모들의 개인내적 심리사회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외부의 2차적인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지원서비스 지각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력 및 지원서비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경남 지역 미혼모자시설, 즉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및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미혼모로서, 시설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한 만 20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성인여성 미혼모를 표본으로 삼았다. 이에 선행연구에 의하여 구조화된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211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분석과 함께, 연구모형과 가설 검증에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경로분석 및 효과분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 인식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이는 자아승인이 자기존중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스로를 가치 있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와 지지적 기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혼모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보호수용적이고 단기적인 숙식해결 차원의 관점보다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원인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2.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은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자활성가에 정(+)의 영향을 유의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총효과 $\beta=.432$ 로 직접효과($\beta=.335$, $p<.01$)와 간접효과($\beta=.096$, $p<.05$)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퇴소 미혼모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평가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는 자활성가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혼모의 재사회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예측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3.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 인식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이는 자기조절 > 과제선호 > 자신감 순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퇴소 미혼모에게 자활이나 일상생활 회복의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 도전적인 태도가 지원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지원서비스에 있어서 단계적인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체험적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4.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기효능감은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자활성가에 정(+)의 영향을 유의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총효과 $\beta=.492$ 로 직접효과($\beta=.332$, $p<.01$)와 간접효과($\beta=.160$, $p<.05$)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퇴소 미혼모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주어진 상황 및 과업에 대한 자신감은 자활성가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미혼모의 재사회화를 위한 심리사회적 예측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5.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는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자활성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이는 경제적 > 정서적 > 평가적 > 정보적 지원 순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모자시설에서 미혼모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실제 자활성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제공, 숙식 제공과 같은 요소들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충분한 돌봄과 관심, 격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수용적 관점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미혼모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을 탐색하여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긍정자원을 회복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설 6.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자활성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심리사회적 요인과 사회적 지지 및 자활성가 간의 관계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활성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미혼모의 자립생활의도나 미래시간전망에 대한 자활성과는 더욱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세부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자활성과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자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자활성과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은 시설폐소 미혼모의 1차적인 개인내적 측면으로서 자활성과를 향상시키는 심리사회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여기에 더한 2차적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더욱 보완하는 효과를 보여 미혼모의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갖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반드시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의 자활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 지지에 의한 원조 및 조력을 통해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와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가져 자활성과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 및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성과의 하위영역을 심리적 태도 차원으로 측정하여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활을 통한 자립달성을 기준으로 수혜자의 변화과정을 주로 측정한다. 그러나 미혼모자 지원서비스는 주로 민간차원에서 간접·보충 급여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활성과의 평가는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변화과정을 측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밝힌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중재하는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특성을 사회적 지지에 근거를 두고 평가하였다.

셋째, 미혼모 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 생태체계론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미혼모의 개인-사회-환경 등의 총체적이고 집합적인 요인들이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활성가에 대한 측정과 접근은 본 연구와 같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한국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에 의해 현행 미혼모 지원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류적 관점에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란 점을 감안하면 미혼모자 프로그램 참여자에 초점을 둔 효과성 제고는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다섯째, 미혼모에 대한 개입전략이나 방법에 있어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혼모들이 전반적으로 대인관계나 자존감이 낮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인 점으로 인해 미혼모에 대한 적극적인 전문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이 있는 경우 지역사회보호기관과의 유기적인 의뢰체제로 미혼모의 자활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섯째, 궁극적으로 미혼모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가 미혼모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서비스 방식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미혼모의 자립·자활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미혼모자시설 및 유관기관의 역량과 지역 사회의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지원 등의 다양한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미혼모의 최소한 소득이 차상위계층에 이를 때까지 지속 관리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회적 지지가 자활성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현재 민간 중심의 지원서비스가 공공영역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와 연

계하여 차별화된 직업교육훈련 기능을 포함한 ‘미혼모 자활능력개발기관’의 설치와 민간 미혼모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조치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혼모자시설이 일종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어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숙식제공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연계나 지지망을 구축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지원서비스에 있어서 정서적 지원의 프로그램도 활성화 하여 미혼모의 재사회화를 위한 종합적인 미혼모자 복지 서비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미흡한 미혼모자 정책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단계적 정책모델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덟째,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체계화가 요구된다. 현재 미혼모가 가장 많은 서울시에서도 정기적인 미혼모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보고되고 있는 미혼모 수 역시 과소 추정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고, 그나마 몇 군데 기관의 발표자료 역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처럼 현황파악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혼모자가정은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혼모자의 보호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일화된 보호체계 안에서 각 시설들이 서비스 대상자의 양태에 따른 유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과 시설, 시설과 기관 등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용위주의 보호체계보다는 자립과 자활에 대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현장지원과 프로그램 제공자인 관련 종사자의 전문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시설환경과 근무조건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개선방안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미혼모의 문제는 각종 사회안전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2.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혼모의 미혼모자시설 퇴소 후 자활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개인내적 자원으로서 심리사회적 요인, 그리고 외부의 2차적 지지체계로서 미혼모자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사회적 지지의 특성이 미혼모의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통합적인 단일모형으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서 실무적·정책적 함의를 얻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 및 자활성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도 자활성가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설퇴소 미혼모가 지각하는 미혼모자시설 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는 심리사회적 요인과 자활성가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여 연구를 하였으나, 자활을 적응적 관점으로 확대한다면 이보다도 더 많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물리적 여건과 선행연구의 부재로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이를 좀 더 보완하여 다양한 영향요인이 고려될 수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미혼모자시설의 서비스체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문제집단으로 오인되기도 하는데, 미혼모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미혼모자가정 역시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다. 이들이 미혼모가 된 것은 개인적 원인 외에도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책적인 분석으로 미혼모 문제에 대한 의미를 점검할 수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통계청(2016). 시도/법적혼인상태별 출생.
- 여성가족부(2017). 모자보호시설 입·퇴소자 현황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금래의원실 주최 제52차 여성정책포럼, 2009. 3. 4,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회입법조사처(2010).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통합 정책과제 현안보고서 제8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김지혜(2013). 미혼모의 현황과 정책과제: 여성대통령에게 바란다! -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여성정책 과제. 지역사회, 69, 100-106.
- 김혜영, 이미정, 이택면, 김은지, 선보영, 장연진(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 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순영(2015).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1(2), 73-103.
-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곽미정, 박선태, 윤선영, 이용환(2017). 가족복지론. 서울: 동문사.
- 전재희(2017). 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다문화건강학회지, 7(1), 33-49.
- 김혜숙, 김동연(2005). 집단미술치료가 미혼모의 자기존중감,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2(4), 821-844.
- 박윤아, 이영호(2017).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43-171.
- 김정희(2008). 알코올 중독자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 —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7, 131-157.
- 이영주(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최혜란, 박숙희(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상담학연구, 10(3), 1743-1756.
- 김광혁(2006). 빈곤이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 사회복지학, 58(4), 265-289.
- 안재진, 김지혜(2004).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3), 61-87.
- 남미애(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91-125.
- 안재진, 김지혜(2006). 시설미혼모의 양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적 관계망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0(4), 605-624.
- 김선영(2014). 집단 상담을 통한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자아효능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2, 31-50.
- 이운조(2002). 자기에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미(201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자(2014). 사회적 지지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 이명희(2012).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225-235.
- 김지혜, 조성희(2016). 양육미혼모의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2), 149-180.
- 통계청(2017). 2016년 출생 통계.
- 도미향, 채경선(2008). 여성학의 이해. 서울: 양서원.
- 한인영(2000).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과제 - 한국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서울: 학문사.

- 보건복지부(2014). 요보호아동 현황 및 조치현황.
- 여성가족부(201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한부모가구 비율.
- 여성가족부(2014).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직원교육자료.
- 여성가족부(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2010). 조사국 차별조사와 8월 30일 보도자료.
- 통계청(2010). 장애 가구추계.
- 통계청(2013). 청소년 통계.
- 최금숙(2012). 전문가와 양육미혼모의 지원방향을 논하다. KWDI Brief, 20, 1-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2010).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 서비스 개선방안.
- 한국개발연구원(201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고서.
-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 현황자료.
- 여성가족부(2013). 미혼모 현황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3). 미혼모 상담자료.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4). 미혼모 상담자료.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5). 미혼모 상담자료.
- 이혜진(2014). 양육미혼모의 삶의 조건과 모성권. 젠더연구, 19, 59-79.
- 문순영(2015). 미혼모자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1(2), 73-103.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0). 제18차 가족여성정책 포럼 자료집(번역본).
- 이명숙(2011). 위기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환경진단 및 긍정적 발달을 향한 전망. 교정담론, 5(1), 167-194.
- 이희성(1994).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김미옥(2000).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황혜정(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2), 1-27.
- 이선영(200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경(2001). 그룹홈 거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 143-161.
- 손지현(1998). 소아암 환자 형제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경(1997).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본적 과정모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2008). 알코올 중독자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 —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7, 131-157.
- 배영미(2001). 청소년미혼모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례 (1995). 학습된 무기력 집단의 귀인 유형과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 박성옥(2013). 창의적 문제해결(CPS)모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미혼모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9(2), 143-165.
- 김선영(2014). 집단 상담을 통한 시설 입소 미혼모들의 자아효능감과 대인관계 향상에 관한 연구. 연세상담코칭연구, 2, 31-50.

여성가족부(2005).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http://www.mogef.go.kr>)

손지영(2017). 한국 미혼모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유선(1999), 사회적 지지와 자기 지각이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원숙(1992), 사회적 망·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은정(1998). 『이혼시 모의 자녀양육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지선근(1999). “부모의 지지 및 지각된 집으로부터의 거리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재환, 청소년의 게임중독,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Vol.9 No., 2008, 675-688.

김유심, 박지영, 빈곤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거주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Vol.11 No.1, 2010, 161-179.

정영자, 20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제적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노원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세원,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전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최종희, 사회적 지지가 자활대상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허태현,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미연, 그룹홈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재은,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동화, 화상으로 인한 안면장애인의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경희, 사회복지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한수정, 근육병 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임현숙, 재가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영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변규란, 모자보호시설 가구주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정몽순,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긍정적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최연경, 사회적지지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배경진,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강민정,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일에 대한 태도, 자립의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부강,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백학영, 구인회, 김정희, 조성은, 안서연,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 접근 :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31 No.2, 2011, 3-35.
- 정원오, 저소득계층의 직업훈련효과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김은영,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활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강명희, 자활사업 효과성과 만족도가 자활욕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강남식, 신은주, 성정현,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002, 23-50.
- 서유미, 자활사업 효과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미,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수진,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종희, 사회적지지가 자활대상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승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창업 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혜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광웅, 부정민, 온라인게임 몰입 및 중독과 개인내적 요인과의 관계 - 자기 존중감, 자기통제력, 우울, 공격성, 감각추구성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Vol.7 No.4, 2006, 1169-1187.
- 엄주리, 하은혜,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및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자기효능감의 고·저 수준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 Vol.22 No.1, 2014, 357-374.
- 이석범, 이경규, 백기청, 김현우, 신수경, 중·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 효능감의 연관성, 神經精神醫學, Vol.40 No.6, 2002, 1174-1184.
- 이재명,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Vol.2 No.1, 2009, 1-18.
- 임결, 자활사업 참여자의 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심영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평가 - 경기북부 5개 시군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대학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이상미(201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아존중감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 매개효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업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연자(2014). 미혼모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성과평가 : 이용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찬호, 레저 스포츠웨어 소비자의 참여동기, 자기효능감 및 운동몰입이 기능성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박지원,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황윤경,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상록, 진재문,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52(봄), 2003, 241-272.

- 이정선, 자활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일현, 자활사업참여자의 사회적 자본이 자활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주 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강태신, 임영식,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성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미래시간전망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 5(2), 2008, 83-101.
- 김민희, 노년기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특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오현주(2013). 종사자의 계획된 우연과 기회전략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희(2006). Triangulation 방법을 이용한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관련 건강상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0(2), 180-188.
- 변호순, 최정균(2016).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3, 1-23.
- Bradley, R., & Corwyn, R.(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h Psychology, 53, 371-399.
- McGrath, J., & Mcgrath, A.(2003). 자존감. 윤종석 역, 서울: IVP.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NASW(1965).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5th. Washington DC: NASW Press.
- Lazarus, R. S.(1977). Personality and Adjust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Achenbach, T. M.(1990). Concoptualization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M. Lewis & S. M. Miller(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N.Y.: Plenum.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ed and coping. New York: Spriged.
- Garnezy, N.(1985). Stress-resistant Chirden: The Search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Eds.),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s Supplement No.4. Oxford: pergamon.
- Pellegini, D. S.(1990). Psychologic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Childhood.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1, 201-211.
- Feankin, W.(1995).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adolescents: The role of protective and compensatory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Jarrell, D. S.(1994). Successful intervention and resul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511-522.
- Voydanoff, P., & Donnelly, B. W.(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3), 328-349.
- Maslow, A. H.(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Gilmore, J. V.(1974). The productive personality. London: Albion-Pub. Co.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cas, V.(1982). The self-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8, 1-33.
- Gloria, J. S., & Mary J.(1998). Children Having Children. Art therapy in a community Based Darly Adolescent Pregnancy Program, Art

- SANOF 1. Journal of the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15(3), 244-265.
- Rodger, K. B., & Rose, H. A. (2002).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ce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pp.1024-1037.
- Wahn, H. E., & Nissin, E.(2008). Sociodemographic background, lifestyle and psychosocial conditions of Swedish teenage mothers and their perception of health and social support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June 2008, 36(4), pp.415-423.
- Bolland, J.(2003). Hopelessness and risk behaviour among adolescents living in high-poverty inner-city neighborhoods. *Journal of Adolescence*, 26(2), pp.145-158.
- Jackson A. P., & Scheines, R.(2005). Single Mother's Self-Efficacy, Parenting in the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a Two-Wave Study. *Social Work Research*, 29(1), pp.7-20.
- Avenevoli, S., & Merikangas, K.(2006). Implication of high-risk family studies for prevention of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1, pp.126-135.
- Elgar, F. J., Mills, R. S. L., McGrath, P. J., Waschbusch, D. A., & Brounbridge, D. A.(2007).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maladjustment problem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pp.943-955.
- Budd, K. S., Holdsworth, M., & HoganBruen, K. D.(2006). Anteced and concomitants of parenting stress in adolescent mothers in foster care. *Child Abuse & Neglect*, 30, pp.557-574.
- Umaña-Taylor, A. J., Guimond, A. B., Updegraff, K. A., & Jahromi, L.

- B.(2013).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Support, Self-Esteem, and Mexican-Origin Adolescent Mothers' Parenting Effica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3), pp.746 - 75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y*, 37, 122-14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Sherer, M. Madux, J. E., Mercandants, B., Prentice-Dumn, & Jacobs, B. (1983).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ilver, W, S., Mitchell, T. R., & Gist, M. E.(1995). Responses 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erformance : The Moderation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sign Processes*, 62(3), 286-29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Kasdin, A. E. (1973). Effects of covert modeling, multiple model, and model reinforcement on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7, 221-222.
- Brown, I. J. & Inouye, D. K. (1978). Learned helplessness through modeling : The role of perceived similarity in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Chambliss, C. A. & Murry, E. J. (1979). Efficacy attribution, locus of control, and weight lo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 49-53.
- Sarason, I. G. (1976). Anxiety and self-preoccupation. In I. G. Sarason & C. D. Spielberger(Eds.), *Stress and Anxiety* (Vol. 2). Washington. D.

C.: Hemisphere.

- Bandura, A., Adams, N. E. & Beyer, J. (1977). Cognitive Processes mediating behavioral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125-139.
- Sideney C.(1979), "Social Support and Health Through the Life Course", In Mathilda W. Riley(ed). *Aging From Birth to Death :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Boulder : Westview Press.
- Weiss, R. S.(1974). The provision of social relationships. In I. R.(Eds.). *Doing unto other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Gottlieb, B. H. (1978),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lassification scheme of informal helping behavior,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vol. 10.
- Barrera, M., Sandler, I., & Ramsay, T. (1981).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 435-441.
- Krause, N.(1995). Negative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50, 59-73.
- House, J. S.,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 1981.
- Rosenberg, M.(1979).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 -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New York: Basic Books.
- Cohen, R., Montague, P., Nathanson, L., & Swerdlik, M.(1988). *Psychological testing: An Introduction to Tests & Measurement*. Mountain view,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 Carstensen, L., & Lang, F., *Future Time Perspective Scale*,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1996.

- Rubin, A., & Babbie, E. R.(2012). Brooks/Cole Empowerment Series: Essential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Belmont, CA: Brooks/Cole.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Kline, R. B.(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The Guilford Press.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Tabachnick, B. G., & Fidell, L. S.(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NY: Allyn and Bacon.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과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미혼모자시설에서 생활을 하셨다가 현재 자립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설퇴소 미혼모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활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혼모자 복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지의 질문사항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느끼시는 그대로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설문지는 연구자 이외에는 절대 열람 및 분석을 하지 못하므로 귀하의 개인사항은 통계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주어진 문항을 잘 읽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소 의미가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시어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귀하와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석사과정 오 세 현

지도교수: 오영삼 교수

1. 다음은 귀하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 항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구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기 존중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주어진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가진 내·외적인 자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 아 승 인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 역채점

2. 다음은 귀하가 현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은 어떠한지에 관한 조사 항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구분	자기효능감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신 감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자 기 조 절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이를 극복하고 일을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과 제 선 호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무언가 성취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야 성취감이 더 클 것으로 생각하므로 힘든 것이 두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귀하가 과거 미혼모자시설로부터 제공받았던 자활지원서비스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조사 항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구분	나는 내가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미혼모자시설로 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	적절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적절한 생활비를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적절한 숙식을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정서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충분한 관심을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충분한 격려를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정보	향후 자활/자립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와 관련된 기술/기능/교육을 충분히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평가	나의 자활/자립 노력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향후 자활/자립을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시설의 구성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위축된 대인관계의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귀하의 자활성과에 관한 조사 항목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곳에 (V)표해 주십시오.

구분	자활성과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립 생 활 의 도	나는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몇 년 뒤 남들처럼 아이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가고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나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미 래 시 간 전 망	내 미래에는 아직도 많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앞으로도 새로운 목표들을 많이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 미래에는 행복한 일들이 더 기다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죽기 전까지 내 인생은 지금보다 점차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연령은?(2017년말 기준)

만 _____세

2)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이상(대학 재학, 졸업, 휴학, 중퇴)

3) 자녀의 연령은?(2명 이상일 경우, 첫 자녀의 연령, 2017년말 기준)

만 _____세

4) 귀하의 미혼모자시설 퇴소 후 경과한 기간은?

약 _____년 _____개월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